

# 현대글로벌비스, 가스 해상운송 진출... 초대형 VLGC 띄운다

(가스운반선)

트라피구라와 10년 간 운송계약  
2000억 투자 VLGC 2척 건조 계획  
6000㎡ 초대형 규모에 친환경 설계  
암모니아 해상운송 최적화 선박 기대  
액화수소 운반선 '기본인증'도 획득

현대자동차그룹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벌비스가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을 투입하며 가스 해상운송 시작을 알렸다. 향후 액화수소 운송까지 외연을 넓혀 글로벌 수소사회 실현에 맞춰 수소유통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세계 3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 '트라피구라'와 운송 계약을 맺고 2024년부터 암모니아와 액화석유가스(LPG) 해상운송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일 김정훈 현대글로벌비스 대표이사(왼쪽)와 호세 마리아 라로카 트라피구라 오일트레이딩 사업부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서명식을 실시했다.

트라피구라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석유·가스·광물·비철금속 등을 취급하는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다. 지난해 기준 약 173조원의 매출과 3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글로벌 업계 3위 업체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가스 운송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최대



김정훈 현대글로벌비스 대표이사(왼쪽)와 호세 마리아 라로카 트라피구라 오일트레이딩 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2일 한국과 스위스 양국 본사에서 비대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년 간 글로벌 수요처에 암모니아·LPG를 운송하며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약 2000억원을 투자해 VLGC 2척을 건조하고 글로벌 해상운송시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조 선박은 적재 규모 8만 6000㎡의 초대형으로 글로벌 가스운반선 가운데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LPG 위주로 운송하는 기존 가스선과 달리 현대글로벌비스 VLGC는 화물창을 특수 재질로 제작해 암모니아까지 운송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암모니아를 선적할 수 있는 VLGC는 20여척내외(VLGC 전체 선대의 10% 이하)다.

규모의 경쟁력도 예상된다. 현재 암

모니아는 주로 비료, 석유화학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적재 규모 3만5000㎡ 이하의 중소형 가스선으로 운송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암모니아의 대량 운송 시대가 도래할 경우 현대글로벌비스 VLGC가 암모니아 해상운송에 최적화된 선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부합하는 최첨단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LPG 이중연료(DF·dual fuel) 엔진과 축(軸) 발전기가 설치된다. 축 발전기는 엔진 축의 회전력을 활용해 선박 추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발전기 자체의 가동 의존도를 낮춰 황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는 대표적 전환

경 신기술로 꼽힌다.

향후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이 개발될 경우 암모니아 추진 엔진으로 개조도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선박이 인도되는 2024년부터 최대 10년간 글로벌 수요처에 암모니아와 LPG 등 가스를 안정적으로 장기 운송할 계획이다.

다가올 액화수소 해상운송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의 첫 단계인 '기본 인증'을 한국선급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획득했다. 이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초 단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국 선사와 조선사가 협력해 받아낸 대형 수소 운반선 인증 최초 사례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해 가스 해상운송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액화수소까지 운송을 추진해 글로벌 수소 유통 주도권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특히 현 기술 수준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수소 저장·운송 매체로 꼽히는 암모니아의 해상운송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에 가입한 현대글로벌비스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수소의 생산-운송-추출 등 전 영역에 걸친 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소의 운송과 저장을 위해서는 기체 상태의 수소를 액체로 바꿔야 한다. 기체수소는 운송용량이 제한적이고, 액화수소(영하 253도 극저온 조건에서 액체 상태인 수소) 방식은 저장 밀도가 낮고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암모니아다. 수소에 질소를 결합시키면 암모니아가 된다. 이 암모니아 형태로 해상 운송을 하고 수요처에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와 달리 상온에서 비교적 쉽게 액화하며 단위 부피당 1.7배 수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 대량 운송이 용이하다.

또 세계적으로 이미 비료 및 화학 산업 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대부분 국가에 운송 및 저장을 위한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일본·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그린 암모니아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암모니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공급을 2030년까지 194만톤, 2040년까지 526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두산인프라코어, 이집트 발판 아프리카 공략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국민지원금 신청"

이집트서 137대 건설장비 판매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  
아프리카시장 33% 증가 전망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사업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집트를 통해 아프리카시장 건설 장비 시장 공략에 나선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이집트 국방부와 36톤 대형 굴착기 28대를 계약, 올해만 이집트에서 137대의 건설장비를 판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 이번 계약된 장비는 이집트 신 행정수도 카이로 간 전원 구축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초에도 이집트 국방부로부터 30대의 건설기계장비를 수주한 바 있다. 이집트에서 추가 계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두산인프라코



DX360LCA 7M.

어는 올해 지난해보다 50% 가량 늘어난 250여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21년 이집트 전체 건설기계장비 시장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집트에서의 이 같은 성장세는 기술, 품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현지 밀착 영업의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이집트 국방부의 경쟁입찰에서 엔진출력과 연비 효율이 우수한 36t급 신기종 모델(DX

360LCA-7M)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 엔진출력은 12% 이상 높였고 최신 유압시스템과 연비 저감기술(VBO)을 적용, 작동성과 연비 효율까지 향상시킨 제품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집트 건설기계 시장은 정부 주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 부처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 발 앞선 기술력과 품질로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집트가 포함된 아프리카시장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부양에 따른 시장회복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약 28% 성장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전년 대비 약 33% 이상 판매량 증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국민지원금 신청"

통신3사, 문자인증·PASS앱 통해  
간단하게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통신3사(SKT·KT·LG U+)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3사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자체와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인증번호를 받거나 PASS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문자 인증 방식은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생체 인증이나 6자리 PIN(PIN) 번호 인증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다.

통신3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백신접종예약 신청 등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본인 확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 방역체계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8월8일부터 2주간 진행된 18~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 예약 신청에서는 통신3사가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의 이용 횟수가 1200만건을 넘어섰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세종 등 3곳 지자체, 카톡서 대민 서비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3개 지자체  
카카오 i 커넥트톡 도입계약 체결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365일 24시간 지자체의 대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각각 '카카오 i 커넥트톡' 도입 계약

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 i 커넥트톡은 카카오톡 채널, 챗봇 등을 결합한 AI 기반의 고객 응대 플랫폼이다. 도입 기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앱 개발 없이 신속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제주도청과 함께 연내 구축을 완료해 내년부터 서

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도청 챗봇에 "모바일 전자고지서 확인해줘"라고 입력하면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카카오페이 청구함으로 연동된 디지털 청구서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및 세종시와는 오는 연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제주와 세종 지역 주민들은 민원, 세무, 교통,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강준혁 기자

## SKT 문자 커머스 '티딜'에 선물하기 추가

앞으로 SK텔레콤의 문자 커머스 '티딜(T deal)'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다.

SK텔레콤은 티딜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딜 이용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선물하기로 상품을 결제한 다음 수취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수취인은 문



자로 전달된 메시지 링크를 통해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강준혁 기자